

News

코픽스 또 최저...수익성 고심하는 은행들

한국경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0.81%로 집계...첫 0%대를 기록한 지난달(0.89%)보다 0.08%포인트 더 떨어져...잔액 기준 코픽스도 연 1.41%을 들어 코픽스 금리는 일제히 8개월 연속 하락...은행권 수익성 유지와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고심이 커져...각 은행의 상황에 따라 하반기 전략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

금감원장 "코로나19 재확산에 종합검사 8월말까지 연기"

연합뉴스

윤석현 금감원장, 18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고려해 종합검사 실시를 8월 말까지 연기...현장 검사 시 비대면 검사 기법을 활용해 신속적인 검사를 할 것도 당부
금감회사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사 활동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사라진다

매일경제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예금을 제외한 펀드·신탁·변액보험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은행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두는 모범 규준이 이르면 다음달 시행
예금·대출 제외 모든상품 이사회가 책임지고 관리 손실위험 20% 넘는 펀드 사실상 판매 불가능할듯...비예금 상품선정위원회 설치 판매 전 기획·사후관리 총괄

대형 금융사 정상화·정리계획 도입 추진...연내 실행방안 마련

연합뉴스

대형 금융회사의 정상화·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주요 금융기관 파산 시나리오 미리 만들어 금융 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 최소화
신한·하나은행 정상화 계획, KB·농협·우리금융지주 정리계획 시범 작성 중...금융위,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구체적 실행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

주담대 막았더니...15년만에 '마통카드' 부활

이데일리

2002년 카드사태 이후 사라졌던 마이너스카드 상품을 다시 내놓은 것은 급격히 커진 신용대출시장을 겨냥...일부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
금감원 관계자, "마이너스카드 상품 자체를 출시 파는 것은 문제없다...시장 추이를 보면서 과열 여부를 지켜볼 것"

10월부터 생명보험사 보험료 5~10% 오른다

서울경제

삼성생명 등 최근 기업실명회를 통해 오는 10월 25bp 수준의 예정이율 인하를 공식화...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10월 상품개정에 맞춰 예정이율 낮추는 방안 검토
중소형 생보사들, 10월까지 시기적인 여유가 있어 아직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번 인하로 현재 2.25%로 맞춰진 대부분 생보사 예정이율 2%대 초반으로 내려앉을 전망

삼성화재, 올 상반기 순익 4,334억원... "코로나로 손해를 개선"

아시아경제

상반기 당기순이익 4,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매출액은 9조7,6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 영업이익 4.1% 늘어난 6,401억원 기록
상반기 장기보험 위험손해를 85.5%로 지난해 81.9%보다 3.6%p 악화...반면 자동차보험 손해를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2.8%p 개선된 87% 기록하며 실적에 기여

'라임 제재심' 9월 개최 힘들다.. 의견서 지연·추석에 일정 빠듯

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이 당초 알려진 9월보다 연기될 가능성
판매사 경영진을 강력히 제재할 근거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고, 일부 제재심 위원 임기만료 문제 등 금감원 안팎의 사정을 고려 시 9월 제재심 결과 발표가 쉽지 않을 듯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